

제인 스마일리의 『천 에이커』: 에코페미니즘 관점으로 재해석한 『리어왕』

도 해 자

한국외국어대학교

I. 들어가며

제인 스마일리(Jane Smiley)의 『천 에이커』(*A Thousand Acres*, 1991)¹는 셰익스피어의 플롯과 인물들을 정확하게 현대적으로 바꾸었다고 평가받을 만큼 『리어왕』(*King Lear*)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Chedgzoy 56-7). 스마일리 자신도 “고너릴과 리건을 위한 변호사”(the lawyer for Goneril and Regan)로서 셰익스피어가 “그의 고객 리어왕”(his client, King Lear)을 위해 만드는 사건들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다른 이야기를 제시했다는 언급을 통해, 『천 에이커』는 딸의 관점으로 『리어왕』을 다시 쓴 소설임을 밝혔다(“Shakespeare” 172). 스마일리는 고너

¹ 스마일리는 아이오와 대학(University of Iowa)에서 영문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 1981년부터 1997년에서 아이오와 주립대학(Iowa State University)에서 영문학을 강의했다. 그녀의 최대 성공작으로 평가받는 『천 에이커』의 주요 무대가 아이오와 주의 농장인 것은 이곳에서의 오랜 생활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며, 소설에서 농장의 역사와 현실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된다. 한편, 『천 에이커』는 출간된 다음해인 1992년에 문학부문 풀리처 상(Pulitzer Award)과 전미 도서 비평가 상(National Book Critics Circle Award)을 받음으로써 문학성을 인정받았고, 1997년에 무어하우스(Jocelyn Moorhouse)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기도 했다.

틸과 리건이 아버지에게 저지르는 악행의 원인이 원작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않는다고 느꼈고, 그래서 딸을 주인공이자 서술자로 삼아 딸의 생각과 고통, 아버지 중심의 내러티브에서는 ‘누락되고 감추어졌을지도 모르는’ 가족사를 그려내고자 한 것이다.

스마일리의 창작의도처럼 소설에서 『리어왕』 다시쓰기는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스마일리가 딸의 관점에서 『리어왕』을 전복적으로 다시 쓰고 있음을 논한 글로, 마리나 레슬리(Marina Leslie), 제임스 슈프프(James Schiff), 캐롤라인 케이크브레드(Caroline Cakebread), 줄리 샌더스(Julie Sanders) 등의 연구가 이에 속한다. 『천 에이커』를 읽어내는 두 가지 큰 주제는 아마도 『리어왕』 플롯의 재구성과 미국 농업사와 관련된 자연 환경 문제일 것인데, 기존의 연구들은 두 작품에서의 자연에 대한 관점이나 자연의 이미지를 비교 연구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언급하는데 그쳤다. 필자는 스마일리가 미국 농업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그려내는 부분에서도 끊임없이 셰익스피어의 어휘와 이미지를 가져와 반복하면서 한편으로 변형시킨다는 점에 주목했다. 『천 에이커』에서 『리어왕』의 자연의 이미지들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살펴보는 데 있어 본 논문은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

1974년에 프랑스 작가 프랑수아 도본느(Françoise d'Eaubonne)에 의해 그 용어가 착안된 에코페미니즘은 생태학과 페미니즘이 결합된 것이다. 주디스 플랜트(Judith Plant)에 따르면, 생태학은 모든 생명체들의 상호의존과 상호연관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생태학과 페미니즘의 결합은 사실상 자연에는 어떤 위계도 없다는 인식 때문에 생긴 것이다(155-56).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지상의 생명체는 위계적인 것이 아닌, 상호 연결된 망을 형성한다. 또한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여성과 자연을 서로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으며, 둘 다 더 큰 체계에 의해 형성되고 특징지어진다고 주장한다(Griffin 216, 219). 다시 말해, 서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 동물, 자연은 남성과 문화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러한 이분법적, 위계적 사고방식은 여성과 자연의 착취를 정당화시키고 조장했다(Sturgeon 117). 남성과 여성 사이의 위계질서처럼, 인간이나 동물, 그리고 자연물들 사이에도 인간사회의 위계질서를 투영시켜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인식하고,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발하고 남용한 것이다. 현대의 전 세계적인 생태위기는 이

런 인식이 자연에 파괴적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천 에이커』에서 스마일리도 가부장적 여성억압의 역사와 자연 개발, 착취의 역사, 생태의 위기가 동일한 궤도를 밟아 왔음을 암시한다. 본 논문은 먼저, 셰익스피어의 몇몇 작품들에서의 자연의 이미지와 남성인물들이 자연물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본다. 이는 셰익스피어에서 자연의 개념이 아주 복잡하고 현대와 차이가 있지만 인간 외적 자연의 이미지와 자연물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어느 정도 현대와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는 점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천 에이커』와 『리어왕』에서의 습지와 동물에 대한 인식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 다룬다. 땅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 논하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물이 독이 되는 과정, 이것이 여성에게 가지는 의미, 그리고 땅과 여성의 몸의 상징성을 논하며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스마일리가 『리어왕』의 자연을 재해석한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자연의 이미지들

셰익스피어의 자연에 대한 논의에서 여전히 빈번히 인용되는 『셰익스피어의 자연론』(*Shakespeare's Doctrine of Nature*, 1949)에서 존 덴비(John Danby)는 주로 『리어왕』을 예로 들어 르네상스 시대의 자연관에 대한 대조적인 두 가지 관점을 설명한다. 하나는 신의 의지에 의해 뒷받침되는, 이성적이고 질서 잡힌, 그리고 너그러운 자연이라는 정통(orthodox) 관점이다. 『리어왕』에서 리어, 글로스터(Gloucester), 에드거(Edgar), 올버니(Albany) 등의 인물이 가진 이 자연관에서 이성, 자연, 신, 인간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² 다른 하나는 에드먼드(Edmund), 고너릴, 리건이 보여주는 관점으로, 이들에게 자연은 신이나 인간과는 분리되고, 인위적 조작이나 통제가 가능한 “죽은 구조”(dead mechanism; 38)이다. 인간과 우주의 만물이 연결되어 하나의 생명체처럼 상호작용한다는 유기체적 자연관으로 볼 수 있는 리어 측의 자연관은 르네상스 시대까지 우세했지만, 덴비가 “신 인간”(New Man; 48)으로 분류한 에드먼드 측의 자연관은, 여러 학자들이 말하듯, 17세기 과학혁명을 거치며 18세기 이후 우세해졌다고 볼 수 있다.

² 덴비는 코딜리어(Cordelia)의 경우 그녀 자체가 자연을 대변한다고 말하며 두 범주에 넣지 않고 별도로 논한다.

L. C. 나이즈(L. C. Knights)에 의하면, 셰익스피어와 당대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은 인간과 인간 외적인 세계가 밀접하고 종교적 차원의 유대로 묶여 있는 세계였지만, 18세기 이후 인간은 이러한 유대를 느끼기를 멈추었고, 인간은 단순히 ‘물질세계’를 관찰하고 이해하며, 지배해야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118). 나이즈는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표적인 에코페미니스트인 캐롤린 머천트(Carolyn Merchant)도 유사한 관점으로 자연에 대한 지배의 인식을 상세히 논하며 과학혁명 이후 자연관의 변화를 설명했다.³ 또 다른 에코페미니스트인 로즈마리 루서(Rosemary Ruether) 역시, 이른바 17세기 과학혁명 시대의 남성 엘리트 학자들은 자연을 수학적 규칙에 따라 복잡적으로 움직이는 죽은 물질로 인식했고, 인간의 부와 힘을 늘리기 위해 무한히 재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한다(20).

본 논문은 에코페미니즘 해석의 틀을 바탕으로 하지만 머천트나 루서처럼 과학혁명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머천트가 『자연의 죽음』(*The Death of Nature*, 1980) 제 7장과 여러 부분에서 자연관의 변화에 미친 베이컨과 17세기 학자들의 영향력을 강조하다보니 이전 시대의 자연관을 이상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르네상스 시대까지 우세했던 자연관, 유기체적 자연관은 생태위기에 처한 현대의 우리가 지향하고 싶은 이상적 관점인 듯 보이지만,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현대 생태학에서 지향하는 유기체적 자연관과 달리, 이 시대의 유기체 이론은 더 큰 전체가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기 위해 구성원들의 종속과 희생을 요구하는 통

³ 덴비는 베이컨을 리처드 후커(Richard Hooker)와 함께 리어층의 자연관에 포함시켰다. 반면, 나이즈는 베이컨의 『학문의 진보』(*Advancement of Learning*)와 『신 기관』(*Novum Organum*)을 중심으로 그의 문체, 언어의 기능에 대한 관점 등을 분석하면서 17세기 ‘감수성의 분열’을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나이즈에 따르면, 베이컨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지식의 목적이 “인간의 이익과 사용”(benefit and use of man; 110)이라는 것이고, 베이컨 이론의 핵심어는 “효용성과 진보”(Utility and Progress; 112)이다. 또한 베이컨의 글에서 자연 현상 뒤에 있는 창조적 생명력을 발견하는 부분은 단 한 단락뿐이었는데, 이것은 18세기적 관점의 전조이다. 한편, 2008년 1월에 출간된 『사상사 논총』(*Journal of History of Ideas* 69.1)은 브라이언 비커스(Brian Vickers), 머천트, 캐서린 파크(Catherine Park)의 지면논쟁을 통해 베이컨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의 불씨를 되살린다. 셰익스피어와 베이컨 연구로 유명한 비커스는 페미니스트들인 머천트와 파크의 베이컨 해석이 단편적이고, 그들이 원하는 부분만을 찾아내 보편화시킨다고 지적하고, 파크와 머천트는 기존의 관점을 반복하면서 비커스의 지적에 대한 반론을 펼쳤다.

치계급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종종 이용되었고, 명백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여성과 인간 외적 자연세계에 대한 태도를 논하게 되면 특히 문제 삼을 여지가 많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 기원을 두고 있는 유기체 이론은 다양하게 변용되어 존재해왔는데⁴, 르네상스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유기체 메타포는 사회조직이나 국가를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는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유기체 메타포는 사극이나 정치적인 극에서 주로 등장한다. 『코리올레이너스』(Coriolanus)에서 로마 원로원 의원은 국가를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며 폭동을 일으킨 시민들을 설득하려 한다. 이 비유에서 시민들은 신체의 사지와 각 부분들이고, 원로원 의원들은 복부이다. 물론 왕은 신체의 머리에 해당한다. 사지오체가 각각 제 기능을 해야 몸이 움직이듯, 국가라는 유기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불평하는 구성원들”(the discontented members; 1.1.109) 없이 자신의 지위나 신분에 맞게 복종하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만약 “다른 역할로 구분된 상부, 하부, 최 하층부들이 일치되지”(high and low and lower / Put into parts, doth keep in one consent; Henry V 1.2.180-81) 않거나, “위계질서에 따라 고유한 위치에 있는”(by degree stand in authentic place; Troilus and Cressida 1.3.108) 조직과 구성원들에 “위계가 질식되면 대혼란이 따른다”(chaos, when degree is suffocate, / Follows the choking; 1.3.125-26). 리어왕이 가장 아끼던 코딜리어를 내치고, 다른 두 딸들의 불평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는 것도 국가와 한 가정의 머리에 해당하는 자신에게 딸들이 무조건적인 복종을 행하지 않아서라고 볼 수 있다.

지배와 종속의 위계질서는 인간사회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외적 자연물에도 존재한다. 인간은 자연의 다른 피조물들보다 상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인간중심으로, 인간의 편의를 위해 자연물이 존재하는 듯 남용하고 훼손하기 쉽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에는 이러한 모습이 자주 등장

⁴ 고대 유기체 이론에서 우주, 자연 세계는 신의 섭리에 따라 정신과 이성을 부여받은 살아 있는 생명체로 인식되었다. 우주 혹은 자연을 지적 유기체로 보는 그리스인들의 견해는 유비에 근거했고, 그 유비는 자연 세계와 개별적인 인간과의 유비이다. 인간은 스스로에 대해 모든 구성요소들이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몸으로 생각하게 되었는데, 자연도 유사한 특성들을 가졌다고 여겼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전체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서로 정교하게 맞춰지며, 전체로서의 자연 세계는 인간이라는 소유주에 유비된 대우주로 설명될 수 있다(Collingwood 8).

한다. 사극 『헨리 4세 1부』(*1 Henry IV*)에서 핫스퍼(Hotspur)는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굽어 흐르는 강줄기에 독을 쏘아 똑바로 평평하게 흐르도록 만들려 계획하고(3.1.98-100), 희극 『당신이 좋으실 대로』(*As You Like It*)에서 악한 형의 음모 때문에 숲으로 도피한 올랜도(Orlando)는 연인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기 위해 “나무껍질에 연가를 새겨서 … 나무를 손상시킨다”(mar . . . trees with writing love-song in/ their barks; 3.2.236-37). 비극 『맥베스』(*Macbeth*)에서 정의의 편에 선 인물들이 군대의 진격 은폐를 위해서 숲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수많은 나뭇가지들을 잘라 “나뭇잎 차폐물”(leafy screens)을 만들어 숲을 파괴하는데, 이 모습은 “땅에 박힌 뿌리를 떼어내라고 나무에게 명령하는”(bid the trees / Unfix his earth-bound root)것 같은 인위적 이미지이다(5.6.1; 4.1.95-96).

로맨스 극 『폭풍우』(*The Tempest*)에서 자연은 인간의 기술로 통제하고 교화해야 할 대상이다. 원주민인 캘리번은 섬에서 울려 퍼지는 “해는 없고 즐거움을 주는 달콤한 곡조”(sweet airs, that give delight and hurt not; 3.2.138)를 들을 수 있고, “이 흙 같은 존재”(Thou earth; 1.2.317)라 불리며, 프로스페로(Prospero)는 책에서 배운 기술로 자연현상인 폭풍우마저 인위적으로 일으킨다. 이 극에서 프로스페로는 인위적 기술을, 캘리번(Caliban)은 자연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Kermode xlviii), 프로스페로가 자신의 철저한 통제 하에 딸을 교육하듯 섬의 원주민인 캘리번을 통제하고 교화시키려 하는 것은 인간이 기술로 자연을 통제하고 변형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도 있다.

『겨울 이야기』(*The Winter's Tale*)의 유명한 장면에서 폴리세니즈(Polixenes)가 보여주는 자연에 대한 관점도 문제적이다. 퍼디타(Perdita)가 자연에 이종교배나 접붙이기와 같은 인위적 기술이 가해진 듯 보이는 카네이션과 패랭이꽃을 거부하자, 폴리세니즈는 아주 교묘하게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간섭을 옹호한다. 즉, 자연이 어떤 수단에 의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을 만드는 것은 자연이며, 자연을 개조하고 변형시키는 것은 기술이지만 그 기술 자체도 자연이라는 것이다(4.4.89-97). 인간은 자연의 창조물이고 자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기술 역시 자연에 포함되고 자연의 창조물이라 볼 수 있다는 폴리세니즈의 추론은 일견 논리적인 듯 보인다. 또한 자연과 인간의 기술을 구분하는 퍼디타와 달리 폴리세니즈는 자연과 기술이 하나라고 주장하며, 그의 주장은 모든 것을 포용하여 자연의 일부로 만드는 자연의 포용력과 생성의 힘을 강조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데, 이렇게 자연의 작용이 아닌 것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파괴적 행위들마저 결국 자연의 작용이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정당화될 수 있다.

1589년에 시론을 논한 저서에서 조지 퍼트넘(George Puttenham)은 기술(기예)이 자연의 보조자 역할뿐만 아니라, 자연의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인식했다(187). 이는 프로스페로나 폴리세니즈의 관점과 다르지 않는데, 퍼트넘의 저서에서 ‘arte’의 의미는 문학이나 예술에 한정되지 않는다. 인간의 온갖 기술로도 해석가능하며, 인간의 인위적 기술로 자연물을 개조하고 더 편리하게 만든다는 의미이다. 퍼트넘의 인식처럼, 르네상스 시대에 크게 유행한 원예나 조경은 자연의 숲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인간의 손길을 가해 더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 인위적 기술로 자연을 개조하고 변경하는 것을 옹호한 대표적 예로 볼 수 있다.

한편, 통제하고 인간의 편의에 맞게 변화시킬 수 없는 자연의 이미지들은 주로 여성과 동일시된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변덕스런 운명을 ‘여신’으로 칭했던 것과 유사하다. 여성은 이성보다는 본능이나 육체적 욕구를 따르는 존재로 여겨졌는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부정적 속성에 투사했던 무질서, 동물성, 육체성의 이미지 역시 여성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혼돈과 무질서의 자연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그려지는 것은 『맥베스』로, 그 중심에 맥베스가 과밀로 치닫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마녀들이 있다. 극의 첫 장면에서 이들이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는 황야는 비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거친 혼돈의 자연공간으로, 여자이면서 남자처럼 수염을 달고 있는 혼돈 그 자체인 “괴이한 자매들”(weird sisters; 1.3.32)과 유비를 이룬다. 또한 숲은 마녀들이 맥베스를 만나 그의 야심을 자극하는 불온한 공간이다. 『타이투스 앤드로니커스』(Titus Andronicus)에서의 숲도 불온한 공간인데, 애론(Aaron)은 “숲은 무자비하고, 끔찍하며, 귀머거리에다 냉담하기”(The woods are ruthless, dreadful, deaf, and dull) 때문에 “특성상 겁탈과 악행을 하기에 적합한”(fitted by kind for rape and villainy) 장소라고 인식한다(2.1.128, 116). 이런 숲에서 처녀는 “먹음직한 암사슴”(dainty doe; 2.1.117)이다.

비극과 달리 희극에서 숲은 소위 ‘녹색 세계’로, 악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치유의 힘을 가진 공간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희극의 숲에서도 남성은 사냥으로 다

른 생명을 파괴시킨다. 『당신이 좋으실 대로』에서, 숲에 침입한 인간에 의해 상처를 입고 신음하는 사슴은 보는 사람에게 연민을 불러일으키지만, 사냥행위를 강력히 비난하고 동물에게 큰 연민을 표시하는 제익퀴즈(Jacques)는 우울증에 빠져 주위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인물이다. 동물보다 인간이 우등한 존재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냥행위는 인간과 동물을 본질적으로 구분하고 문화(교양)와 자연을 구분하는 근거로도 이용되었다.

발 플럼우드(Val Plumwood)가 지적하듯, 우주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비유했던 플라톤은 동물, 특히 야생 동물에 대해 그 열등성을 인정하며 인간의 비이성적 색욕과 같은 도덕적 타락의 메타포로 사용했는데(95), 『당신이 좋으실 대로』에서 동생의 음모로 궁정에서 쫓겨나 숲에서 생활하는 선임공작(Duke Senior)에게 “짐승의 본능(욕망) 자체”(the brutish sting itself)는 “관능적”(sensual)이다(2.7.66). 교양을 쌓기 위한 교육기회를 형이 빼앗아버려 자신은 형의 “거름더미에 있는 동물들과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다”(animals on / his dunghills are as much bound to him as I; 1.1.12-13)고 불평하는 올랜도가 숲의 “모든 것들이 야만스럽다”(all things had been savage here; 2.7.106)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렇게 셰익스피어의 몇몇 작품들은 현대 에코페미니스트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자연물, 동물, 여성의 상호관계와 이에 대한 남성인물들의 인식상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인간과 인간 외적 자연물과의 관계에 있어 명백히 인간 우위였고, 사람들은 자연물을 남용하고 훼손한다. 또한 무질서하고 혼돈된 자연의 공간은 여성적 공간으로 나타나며, 여성이 동물에 비유되는 등, 자연의 부정적 속성에 투사된 무질서, 동물성, 육체성의 이미지들이 여성적인 것으로 묘사된다.

III. 『천 에이커』와 『리어왕』에서의 습지, 동물, 그리고 여성

스마일리의 『천 에이커』에서 중심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쿡(Cook) 가문의 가부장들, 즉, 지니(Ginny)의 조상들이 가졌던 자연에 대한 태도이다. 그들에게 자연은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공존하는 생명체보다는, 인간이 이용하고 개발해야 할 대상이다. 이후 어떤 영향을 미치든 상관없이 당장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

그것은 선인 것이다. 그들은 농부의 첫 번째 의무는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것”(to grow more food)이고, 농부의 두 번째 의무는 “더 많은 땅을 사들이는 것”(to buy more land)이라는 교리와 같은 신조를 가졌다(45). 그래서 지니의 조상들은 끊임없이 습지를 배수하는 동시에 경쟁력이 약한 이웃 농부들을 밀어내 그들의 농지를 매입함으로써 땅을 확장해왔고, 곡식에 농약을 뿌려 더 많은 수확을 얻었다. 소설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풍요와 성공을 가져다 준 쿡 가족의 농업 방식에서 희생되고 사라져간 존재들을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것의 이면에 있는 것에 대한 교훈”(a lesson about what is below the level of the visible)을 돌아보게 한다(9).

사라져간 존재들 중에서 먼저 언급되는 것은 인간의 발길이 닿기 전부터 무수한 세월동안 존재해온 습지와 동물, 특히 펠리컨 새들이다. 지니의 조상들이 1890년에 영국에서 제불론 군(Zebulon county)으로 처음 이주했을 때 이곳 전체는 습지였고, 수십만 마리의 펠리컨이 동지를 틀고 있었다. 거대한 대평원과 같은 습지에 온갖 수생 식물, 새, 동물, 물고기, 곤충들이 공존했다. 습지는 동식물에게 풍요로운 터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습지의 밀집한 초목과 바닥의 퇴적물은 오염물질을 걸러냄으로써 수질을 향상시키고, 많은 빗물을 저장했다가 점진적으로 내보냄으로써 홍수통제에도 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표면적인 자연의 물질적 효용성만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습지는 ‘쓸모 없는’ 곳이기에 물을 빼서 농지로 만들어야 비로소 그 가치가 생긴다. 영국에서 습지를 배수하여 농지로 만들려는 시도는 17세기부터 본격화되어 습지 토착민들의 저항에 부딪치면서도 여러 세기동안 계속되었는데⁵ 19세기에 영국에서 건너

⁵ 17세기 동안의 영국 늪지대 배수는 생태계와 빈민에게 미친 초기 자본주의 농업의 영향을 충격적으로 보여 준다. 런던과 캠브리지 북쪽 피터버로우(Peterborough), 일리(Ely), 베드포드(Bedford)의 광범위한 지역은 겨울에는 물로 가득 차지만 건조한 여름에는 그 가장자리에서 목장을 얻을 수 있는 늪과 못, 초원의 지대였다. 17세기에 이들 늪지대의 배수와 간척 기간이 시작되어 다음 3세기에 걸쳐 확대되었다. 배수 이전에 늪지는 그 지역에 터전을 이룬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어류나 조류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배수 계획이 진행되면서 많았던 야생동물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새들이 잡히지 않게 되었다. 또한 늪지대의 경제는 수백 년에 걸쳐 인간적 필요와 동물 목축, 곡식 생산, 그리고 흙의 비옥함 사이의 생태적 균형에 의해 유지되어 왔었다. 농부들은 자신의 부와 무관하게 공유지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배수 후에는 보다 부유한 농부들만이 새로이 배수된 농지를 임대할 여유가 있었다. 17세기의 한 팸플릿에 따르면, 늪 배수 계획은 수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Merchant 57-58).

온 지니의 조상들은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발달한 배수기술의 도움으로 제불론 군의 습지를 배수한다. 그들은 물에 잠긴 땅을 저렴하게 사서 타일 배수로를 설치하기 시작하고, 삼대에 걸쳐 계속된 배수 타일의 설치로 물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물은 땅 밑 배수관 속에서만 흐르고 농경지의 지표면에서 사라졌다. 이제 농부들에게는 “고인 물이 없는 것”(no standing water)이 “훌륭한 농장의 표시”(the signs of a good farm; 45)로 받아들여지고, 지니의 아버지는 땅을 “더 효율적으로”(more efficiently; 85) 사용하기 위해 딸들이 종종 수영을 하던 오래된 연못도 메워서 밭으로 만들어 버렸다.

셰익스피어 작품들에서 “유해한 늪”(unwholesome fen; *Tempest* 1.2.325), “썩은 늪”(rotten fens; *Coriolanus* 3.3.131) 등의 표현이 확인해주듯, 습지는 전통적으로 인간에게 해로운 병균이 득실거리는 부정적인 장소로 인식되어왔다. 그래서 『리어왕』의 리어는 불친절하게 대하는 고너릴에게, 태양이 “습지에서 빨아올린 안개”(fen-sucked fogs; 2.4.167)가 그녀를 감염시켜 물집이 생기게 하라고 말한다. 에드거의 인식에서도 “늪과 수렁”(bog and quagmire; 3.4.51-52)은 사악한 악령이 출몰하는 곳이다. 『천 에이커』에서의 가부장들도 습지에 대한 유사한 인식을 드러낸다.

그러나 아버지는 증조부모가 혐오감을 느낀 땅에 대해 늘 말했다. 거대한 왕모기들, 사방에 있는 뱀, 부들, 거머리, 도롱뇽, 말라리아, 우리 땅 건너편에 있는 동쪽 캐봇 시에서, 10마일 떨어진 콜럼부스 시에 이르기까지, 1889년 당시 겨울에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광활한 공간이었던 땅 말이다.

But he always spoke of the land his grandparents found with distaste-- those gigantic gallinippers, snakes everywhere, cattails, leeches, mud puppies, malaria, an expanse of winter ice skateable, in 1889, from Cabot east, across our land, all the way to Columbus, ten miles away. (46)

지니의 아버지와 조상들이 인식하는 습지는 겨울에는 얼어붙고, 다른 때는 온갖 모기와 곤충들이 우글거리며, 부들과 같은 잡초들이 가득한 쓸모없는 곳으로, 여기서 셰익스피어에서의 습지 이미지가 반복된다.

습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연결된다. 『리어왕』에서

물 그 자체는 남성성을 약화시키고 남성에게 시련을 주는 것으로 그려진다. 물로 누룩을 망치는 술장수 언급에서 드물게 글자 그대로의 물이 등장하지만(3.2.82), 물은 주로 눈물과 빗물을 나타낸다. 리어는 딸들에 대한 분노로 눈물이 흐르자 “여자의 무기인 눈물”(women’s weapons, water drops; 2.4.275-76)이 남자의 뺨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고 기원한다. 리어에게 눈물은 “나의 남성성을 뒤흔드는”(to shake my manhood; 1.4.291) 딸들과 같다. 그리고 실내에서의 “아침”(court holy-water)이 바깥의 “빗물”(rain-water)보다 낫다는 광대의 대사에서 물은 아침과 빗물로 연결되어 부정적으로 다루어진다(3.2.11-12). 특히 빗물은 바람이나 천둥번개와 더불어 리어에게 큰 시련을 주는 자연의 “성난 요소들”(fretful elements; 3.1.4)이다. 리어에게 시련을 주기에, 리어는 자연의 요소들을 사악한 두 딸들과 결합하려는 비열한 앞잡이라고 부른다(3.2.21-22). 『천 에이커』에서의 가부장들도 마치 물이 그들의 남성성을 약화시키거나 시련을 주는 대상이 기라도 한 듯, 땅 속 배수관 속에 철저히 가두고 통제하여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든다.

반면 소설의 주인공 지니는 이런 이미지를 변형시킨다. 지니에게 습지는, 푸른 물이 고요하고 투명한 햇살에 반짝이고, 펠리컨 무리들이 평화롭게 반짝이는 물 위에 노니는 정겨운 곳이다(9). 습지에 공존하는 온갖 식물과 동물들은 헤아릴 수 없는 세대 동안 살고, 번식하고, 죽고, 그리고는 습지 바닥의 흙과 결합하여 다시 흙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곳의 토양은 다른 어떤 곳의 토양보다 더 두텁고, 비옥하고, 더 생생하게 “과거와 미래의 삶의 풍요로움”(a past and future abundance of life; 132)과 함께 살아 있다. 그래서 습지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물에 대해서도, 지니는 계속 물을 찾아다니고 물을 의식한다. 그녀는 “촉촉한 미풍”(moist breeze; 27)에 취해 창가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하고, 아버지가 메워버리기 전 연못에서 로즈(Rose)와 함께 “물의 시원함에 흠뻑 젖어”(soaking up the coolness of the water; 95) 푸른 하늘을 보곤 하던 때를 그리워하고, 사라진 연못과 연못의 “물기”(dampness; 206)가 그리워 흔적을 찾아 나선다. 또한 조상들이 처음 정착했을 때 바다와 같던 습지가 사라지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바다는 여전히 우리 발아래 있고 우리는 그 위를 걷는다”(The sea is still beneath our feet and we walk on it; 16)고 느낀다.

이러한 지니의 모습은 셰익스피어의 고너빌과 대조적이다.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가지에서
 자신을 잘라내는 여자는 반드시
 시들어 빨갭으로 사용되고 말 것이요.

She that herself will sliver and disbranch
 From her material sap, perforce must wither,
 And come to deadly use. (4.2.35-37)

위의 올버니의 대사에서 고너릴은 나무(자연)으로부터 스스로를 잘라내서 결국 시 들고 파멸하는 나뭇가지로 언급된다. 극 전반적으로 고너릴은 아버지 에 대한 불효를 함으로써 인류를 저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 자연의 법칙도 거스른, 반-자연적인 인물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소설에서 스마일리는 습지나 물을 좋아하고 가까이 느끼고 싶어 하는, 에코페미니즘이 보여주는 인간과 자연물의 공존의 관점을 제시하는 인물, 지니로 변형시킨다. 또한 지니는 물이라는 자연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통제 하에 두려는 남성인물들의 시각을 교정하고 있다. 루서가 지적하듯, 서구의 가부장적 인식은 인간을 자연과 분리시키고, 자연을 인간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현실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체로 자연과 분리할 수 없는, 자연에 포함된 존재이다. 식물과 동물들은 수십억 년 동안 인간 없이 살아온 반면, 삶을 지탱시키는 바탕으로 자연의 나머지 부분들과 분리되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 존재인 것이다(Ruether 14).

상호공존의 관점이 아닌, 자연을 인간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인간의 통제와 지배하에 두려는 가부장적 남성의 시각은 습지, 물 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인간사회에 인위적으로 형성된 위계질서를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투영시켜 자연을 인간보다 열등한, 그래서 통제와 지배의 대상으로 삼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여성을 동물과 연관시켜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고, 여성에게 동물의 부정적 이미지를 투영하였다. 스마일리의 『천 에이커』는 『리어왕』에서 묘사되는 여성과 동물의 부정적 이미지의 연관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를 변형시킨다.

먼저 『천 에이커』의 초반부에서 습지와 함께 사라진 존재로 언급되는 펠리컨은 『리어왕』에서 파괴적 여성성에 비유된다. 펠리컨 어미 새는 자신의 가슴을 쪼아 그 피를 새끼에게 먹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생명을 주는 펠리컨”

(life-rendering pelican; *Hamlet* 4.5.151)이라는 표현에서처럼 펠리컨은 자식을 사랑하는 모성을 상징했지만, 리어는 “이런 펠리컨 같은 딸들을 낳은 것은 바로 이 몸이었어”(“Twas this flesh begot / Those pelican daughters; 3.4.70-71)라며, 리어는 펠리컨의 메타포를 전유한다. 즉, 리어는 펠리컨의 메타포를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닌, 어머니의 피를 마시는 배은망덕한 자식으로 바꾸어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리어는 자신의 분신과 같은 광대가 지적하듯 “딸들을 어머니로 삼으려했기”(thou mad’st / thy daughters thy mothers; 1.4.169-70) 때문에 비극이 시작되었고, 결혼한 딸인 코딜리어에 대한 이기적인 소유욕을 버리지 못해 결국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그 반대의 경우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천 에이커』에서도 아버지 래리(Larry)는 자식을 위해 희생한 부모이기보다는, 딸들이 아버지에게 희생을 강요당한 것으로 그림으로써 스마일리는 리어의 펠리컨 메타포의 전유를 상기시킨다.

펠리컨 비유에서처럼, 『리어왕』의 여러 남성인물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규정된 동물의 온갖 부정적인 속성을 여성에게 투영시킨다. 171번의 동물 언급이 등장하는 『리어왕』에서 동물이 인간에게 비유되는 것은 98번이다(Kane 147). 동물이 인간에 비유될 때는 “게으름에 있어서는 돼지, 도둑질은 여우, 탐욕은 늑대, 광기는 개, 약탈은 사자”(hog in sloth, fox in stealth, wolf in greediness, dog in madness, lion in prey; 3.4.85-86) 등 동물의 부정적인 속성을 끌어오고, 동물에 대한 인간의 불신이 드러난다.

많은 동물들 중 사악한 고너윌과 리건에게 주로 비유되는 동물은 사악함과 간교함의 상징인 뱀이나 독사, 여우, 늑대 등이다. 이외에 리어는 딸을 흉악한 술개로 칭하기도 하고, 올버니는 그들을 호랑이들이라고 부른다. 리어의 딸들에 대한 분노는 여성전체에 대한 혐오감과 연결되는데, 여성은 “방탕한 색욕”(riotous appetite)에 있어 “죽제비”(fitchew)나 “발정 난 말”(soiled horse)에 비유된다(4.6.121-22). 그러나 이들 동물의 속성들은 외형, 인간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특성, 맹수의 야성 등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편견이 부여한 속성이자, 그들의 본질은 아니다. 모든 동물들은 태어난 본성대로 먹이사슬 내에서 먹이를 찾고 행동할 뿐이다. 여성성이나 자연의 개념이 문화적으로 정의된 인위적 형성물이듯, 동물의 속성 역시 철저히 인간중심의 문화적 구성물인 것이다.

『천 에이커』에서도 많은 동물들이 언급되지만 지니는 『리어왕』에서처럼 인간의 관점으로 동물의 속성을 규정하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 농장 뒤편의 쓰레기장으로 지니와 제스(Jess)가 산책을 간 장면에서 뱀이 언급되는데, 제스는 예전에 보았던 자신이 좋아하는 뱀 종류를 찾는다. 제스는 적이 나타나면 굴러서 죽은 척하고 혀도 축 늘어뜨리는 재미있는 동부산 돼지코뱀, 예쁘고 빠른 우유뱀, 쥐뱀들에 대해 말해주고, 지니는 웃는다. 이들에게 뱀은 그냥 자연계에 살아가는 뱀일 뿐, 피하고 없어야 할 사악한 짐승이 아니다. 동물은 자연에서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또 다른 소중한 생명체이다.

그러나 동물을 인간의 잣대로 바라보고 그 편견을 투영시키면 동물을 혐오하고 학대하거나, 인간에게 경제적 이용가치가 없는 동물의 경우 무분별하게 죽이게 된다. 소설에서 래리와 해럴드(Harold)가 그러하다. 지니의 아버지 래리는 쓰레기장 부근의 뱀들을 죽여 버렸는데, 아버지는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untamed nature; 123)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또한 래리는 해마다 밭에서 토끼나 새와 같은 동물을 죽였고, 제스의 아버지 해럴드도 옥수수 수확 때 밭에 누워있는 사슴을 쫓아내지 않고 기계를 그대로 몰아감으로서 사슴을 무참히 죽게 한다(234-35). 사슴 에피소드를 들고 지니는 눈물을 흘리며 동물에 대한 잔인한 행동들을 믿기 힘들어 한다. 그녀는 동물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물에게서 느끼는 고요함과 친근한 교감”(the silence and the sense of companionship I felt from the animals; 135)을 좋아한다.

어떤 면에서 지니가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에게서 교감을 느끼는 것은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억압과 고통을 당하듯 동물들도 같은 구속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온 듯 보인다. 남편이 심혈을 기울이는 돼지 축사에서 돼지들의 출산을 돕던 날 밤에 돼지가 된 자신을 남편이 쓰다듬는 꿈을 꾸던 적이 있던 지니는 이번에는 자신이 고삐에 묶인 말과 유사하다고 느낀다.

사실, 난 이미 그 모든 노력에 지쳤고, 절망적이었다. 이 시간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의 몇 달간을 떠오르게 했는데, 그때와 지금 사이에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은 것 같았다. … 나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동물을 느꼈다. 짝끼는 마구간에 고삐가 묶여져 있는 말인 것 같았다. 머리를 획 돌리고 발로 바닥을 차보지만, 기둥과 빗장과 고삐에 딱 매여 있어서 말은 지쳐버리고, 예전에 매 순간들이 감내할 수 없는 자극물과도 같던 그 속박을 받아들인다.

The fact is, I was already exhausted with the effort of it all, already hopeless, already recalling those months just after my mother died as if nothing had intervened between that time and this. . . . I felt another animal in myself, a horse haltered in a tight stall, throwing its head and beating its feet against the floor, but the beams and the bars and the halter rope hold firm, and the horse wears itself out, and accepts the restraint that moments before had been an unendurable goad. (198)

지니는 폭풍우 사건 후에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하며 아버지의 농장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벗어나기 힘든 자신의 처지를 고백에 꼭 매여 있어 발버둥 쳐도 풀려날 수 없는 말에 비유한다. 이렇게 동물에게 공감하고 때로는 동물과 동일시하는 지니의 태도는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다. 여성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이고, 이성보다 본능에 따르는 여성은 동물과 유사하여 동물처럼 남성의 지배와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여성혐오담론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코페미니스트인 로리 그루언(Lori Gruen)이 지적했듯, 여성과 동물의 연결은 여성과 동물이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에 의해 억압의 대상으로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하기 위함이다(61). 그레타 가드(Greta Gaard)에 의하면, 인종, 계층, 젠더, 성, 신체 능력에 근거한 억압은 자연의 억압을 재가하는 이데올로기와 같은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자연을 해방시키는 노력이 동시에 있지 않으면 여성을 해방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성공할 수 없다(1). 따라서 『천 에이커』에서 동물들에 대한 언급과 공감의 표현들은 가부장제하에서 여성처럼 동물 역시 타자화되어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대상이며, 모든 생명의 존엄성과 자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자 한다.

IV. 『천 에이커』와 『리어왕』에서의 땅과 여성

지니는 결혼 삼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했지만 유산을 했고, 그 뒤 다섯 번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유산을 반복했다. 11, 13, 15, 19, 22세의 “나의 다섯 아이들”(my five children; 370)이라고 표현할 만큼 아이에 대한 집착과 상실감은 컸

고, 결혼 이후 지니의 삶은 임신과 유산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니의 반복적인 유산이 우물물에 배어든 질산염 때문이었다는 것을 간파한 사람은 베트남전 징병을 피해 떠돌다가 십 삼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제스이다.

그는 격분했다. “우물물에 있는 질산염이 유산과 영아 사망을 유발한다는 것은 10여년 그 이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에요. 비료 유액이 지하수지층으로 스며든다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믿기지가 않네요.”

“그건 아니야. 그랬을 리가 없어. 로즈도 그 물을 마셨는데.”

“그것은 일률적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모든 우물이 다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누나네 우물이 배수 우물에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He exploded. “People have known for ten years or more that nitrates in well water cause miscarriages and death of infants. Don’t you know that the fertilizer runoff drains into the aquifer? I can’t believe this.”

“It wasn’t that. It just hasn’t worked. Rose drank the water—”

“It’s not uniform. It doesn’t affect everyone the same, and not all wells are the same. Yours might be closer to the drainage wells.” (165)

래리의 농업방식은 자신 딸도 파괴한 것이다. “생산성을 증대시킬 모든 새로운 방법들에 대한 강한 욕망”(lust for every new method designed to swell productivity)을 가진 래리는 늘 앞서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고 토질 ‘개선’을 위해 비료나 농약을 남용했다. 농업잡지에 “이 농부의 가장 큰 농기계는 곧 비행기가 될 것인가?”(Will the Farmer’s Greatest Machine Soon be the Airplane?)라는 제목 하에 농장에서 유럽 조명층 나방 살충제를 뿌리는 그의 모습이 실릴 정도였다(45). 물론 “가장 큰 농기계”인 비행기는 농약살포용이다. 이렇게 농장에 뿌린 화학약품들이 지니의 유산의 원인이 되었다.

지니의 서사는 로즈의 암의 원인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지만, 34세에 유방암으로 한 쪽 가슴을 제거하고, 몇 년 후 결국 죽은 로즈 역시 화학농업으로 오염된 우물물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지니의 어머니, 제스의 어머니, 그리고 로즈, 이곳 여성들의 암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소설의 제사가 말해주듯, “몸은

지세(풍경)를 반복한다”(The body repeats the landscape). 땅이 화학약품으로 오염되자 결국 인간의 몸도 오염되었다. 로버트 세션즈(Robert Sessions)에 따르면, 2차 대전 이후 아이오와 주에서도 널리 퍼진 화학농업은 이곳 사람들과 가축이 마시는 물을 오염시켰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었는데, 특히 제 3세계 국가 모든 곳에서처럼, 여성과 아이들이 많이 병들었다. 그래서 농업방식은 페미니스트의 관심주제이다(178). 가부장제의 폐해가 여성과 아이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미치듯, 자연 파괴의 영향 역시 여성과 아이들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1962년에 출간된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은 미국에서 페미니스트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에코페미니즘이 부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앞에 인용한 지니와 제스의 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1979년이기 때문에 제스가 말하는 십여 년 이전은 1960년대로, 카슨의 저서가 미국 전체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던 시점이다. 이 저서에서 카슨은 농약, 제초제, 살충제와 같은 화학약품이 생태계와 인간에게 미치는 파괴력에 대해 충격적으로 고발하는데, 농경지와 숲, 정원에 뿌려진 화학약품들은 토양 속에 머물다가 지하수로 침투한 다음, 대기나 태양과 결합하여 식물을 죽이고 가축을 병들게 하며, 오염된 우물물을 마신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감춘 채 때론 치명적 해를 입히곤 한다. 따라서 우리는 물에 대해 “생명의 연쇄”(chains of life)와 한 생명체에서 다른 생명체로의 물질의 “끝없는 순환적 이동”(endless cyclic transfer)과 관련하여 생각해야 한다(Carson 46).

소설에서 지니가 물에 대해 끊임없이 의식하고 물의 순환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카슨이 지적한 이러한 순환체계를 강조하려는 것이다.

나는 항상 토양에 스며든 물을 의식했던 것 같다. 입자에서 입자로, 그리고 물 분자로, 달라붙고, 모이고, 증발하고, 데워지고, 식고, 얼고, 지표로 올라왔다가, 그리고는 서늘한 공기를 안개로 덮거나 아래로 내려오고, 이런저런 양분을 분해하기도 하며, 늘 빠르게, 끊임없이 움직이고 흘러 때로는 강이 되고, 때로는 바다가 되기도 하는, 그런 물의 이동 말이다. 나는 어렸을 때, 타일관이 없으면 물은 언제든지 솟아올라 다시 지상을 뒤덮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상상했다.

I was always aware, I think, of the water in the soil, the way it travels from particle to particle, molecules adhering, clustering, evaporating, heating, cooling, freezing, rising upward to the surface and fogging the cool air or sinking downward, dissolving this nutrient and that, quick in everything it does, endlessly working and flowing, a river sometimes, a lake sometimes. When I was young, I imagined it ready at any time to rise and cover the earth again, except for the tile lines. (16)

겉으로 보기에 사라진 물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기화와 응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 이러한 순환 때문에 인간이 땅을 오염시키면 물이 오염되고, 물의 오염은 다시 인간 몸의 오염으로 바뀌는 “독의 순환고리”(the loop of poison; 370)가 되는 것이다.

『천 에이커』의 주제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독은 『리어왕』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다. 극에서 ‘poison’은 모두 ‘독’을 의미한다. 광기 상태의 리어와 에드거가 고너릴과 리건을 재판하는 장면에서, 리어가 개들이 자신을 향해 짖어낸다고 하자, 에드거는 주둥이가 검든, 희든, 물면 독이 있든 모두 자신이 쫓아버리겠다고 말한다. 켄트와 리어의 언급에서 개는 고너릴과 리건을 지칭하기 때문에⁶, 에드거가 말하는 독이 있는 개 역시 리어의 두 딸들을 의미한다. 결말에서 두 딸들은 “한 쪽이 다른 쪽을 독살하고”(The one the other poison’d; 5.3.240) 자살한다. 리어의 두 딸들은 자신이 독이면서, 또한 독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천 에이커』에서의 두 딸들 역시 독과 연관성이 있다. 한 사람은 독으로 암에 걸려 사망하며, 다른 한 사람은 독으로 반복적인 유산을 하게 된다.⁷

⁶ 『리어왕』에서 언급되는 개는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가진다. 여러 인물들이 각자 자신이 싫어하는 인물에게 개라고 말하는데, 리어와 켄트의 언급에서 개들은 고너릴과 리건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켄트는 “개와 같은 마음을 가진 왕의 딸들”(his dog-hearted daughters; 4.3.46)이라고, 리어는 “그년들은 개처럼 나에게 아부를 했어”(They flattered me like a / dog; 4.6.96-97)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⁷ 소설에서도 큰 딸은 동생을 독살하려고 시도한다. 지니는 로즈가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 같아 로즈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독 당근(hemlock)을 넣은 소시지 절임을 만들어 로즈에게 준다. 극에서처럼 동생이 그것으로 인해 죽지는 않지만 지니의 시도는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소설을 해석하려는 독자들을 불편하고 혼란스럽게 한다. 지니는 생명파괴적인 가부장들의 농업방식을 비판하면서도 이기적인 의도로 생명을 파괴하려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로즈는 이미 암을 앓았고,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말이다. 작가 스마일리는 이에 대해 명확한 의도를 말해주지 않고 독자의 몫으로 남겨둔다.

그러나 스마일리는 『리어왕』에서의 독의 메타포를 반복하면서도 이를 변형시킨다. 『천 에이커』에서 독은 딸들이기보다는 농장에 뿌려진 화학약품과 생명과 파괴적인 농업방식이다. 나아가 소설은 가부장들 자체가 여성들에게 독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여성들이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가부장들 밑에서 겪었을 정신적 중독이 그것이다. “도망”(fleeing)가고 “탈출”(escape)하여 “익명의”(anonymous)의 존재가 되고 싶다는 지니의 생각이나(220), “나의 죽은 어린 자아”(my dead young self, 370)라는 표현이 대변하듯, 지니와 로즈가 십대 소녀시절에 겪은 아버지의 성폭행이 가장 큰 정신적 독이었음을 말할 것도 없다. 지니의 어머니, 제스의 어머니, 그리고 증조할머니 이디스(Edith) 역시 억압적 가부장들 하에서 정신적 독으로 일찍 사망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이디스는 말이 없기로 유명했는데, 지니는 그것이 그녀의 성격 탓이라기보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이디스는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침묵을 강요당했고, 그들의 땅 확장에 대한 욕망 속에서 숨 막혀했다는 것이다.

『리어왕』에서는 모든 인물들의 어머니가 부재하며 언급조차 되지 않는데, 스마일리는 『천 에이커』에서 “어떻게 … 어머니가 사라졌는지”(how . . . our mother disappeared; 227) 조사하고 설명함으로써 어찌면 『리어왕』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어머니들이 사라졌을지 모른다고 암시한다. 여성 극 그룹(WIG)과 일레인 페인슈타인(Elaine Feinstein)이 공동 창작한 『리어의 딸들』(*Lear's Daughters*, 1987)에서 어머니는 남편 리어의 아들출산에 대한 욕망 때문에 늘 힘들어 했고 결국 코딜리어를 낳다가 사망한 것으로 그려지는데, 스마일리는 어머니들이 가부장에 의한 정신적 ‘독’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것이다. 『리어왕』의 리어도 현재의 왕국을 이루는 과정에서 『천 에이커』의 가부장들처럼 여성들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가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땅의 확장에만 전념해왔을지도 모른다. 리어에게도 땅은 “탐낼 무언가”(something to covet)이고, “계획과 음모의 보고”(a treasure of schemes and plots; *Thousand Acres*, 132)였을 것이다.

어찌면 이는 작가가 셰익스피어의 플롯을 지나치게 엄격히 따라가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거나, 너무 착하고 희생적인 동화적 인물로 형상화하지 않으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사실 소설에서 래리나 해럴드와 같은 아버지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지니, 로즈, 제스 등 다른 대부분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양면을 모두 지닌 것으로 형상화한다.

『리어왕』에서 리어의 후세대 남성들에게도 땅은 탐나는 대상이자, 계획과 음모로 나누고 뺏고 침입하는 대상이다. 첫 장면에서 리어는 지도를 펼쳐놓고 딸들의 지참금으로 땅을 사위들에게 배분해준다. 땅의 분할 이후에 두 사위들은 땅을 서로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그 와중에 코딜리어의 남편인 프랑스가 영국을 침입하여 세 사위간의 전쟁으로 확산된다. 그러나 이 극에서 땅에 가장 집착하는 인물은 에드먼드이다. 에드먼드는 아버지의 백작지위를 물려받겠다는 욕심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는 당신의 땅을 가져야겠어”(I must have your land; 1.2.16), “음모로 땅을 가지겠어”(have lands by wit; 1.2.167) 등의 대사에서처럼 ‘땅’을 가지겠다는 말을 한다.⁸ 온갖 계획과 음모로 땅을 가지려던 에드먼드는 『천 에이커』의 래리와 닮은 점이 있다.

스마일리는 『리어왕』 다시쓰기에서 주로 리어를 래리에게 녹여냈지만, 욕망하는 것을 획득하는 방식이나 자연관에 있어 래리는 에드먼드의 모습도 가진다. 앞서 다룬 습지, 동물, 땅 등을 대하는 태도 외에, 래리의 자연관을 상징적으로 대변해주는 것은 지니에게 비친 아버지의 모습에서이다. 지니의 회상에서 “아버지는 지세(풍경) 때문에 왜소해 보이지 않았는데”(He was never dwarfed by the landscape; 20)으며, 아버지의 존재성은 “주변의 것들을 흐리게 만드는 효과”(the effect of dimming the surroundings; 48)를 가지고, 그는 공존보다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올라가는 방식을 취해왔다. 에드먼드처럼 적자생존의 경쟁적이고 파괴적인 태도를 가진 것이다.

『천 에이커』의 래리처럼, 『리어왕』에서 술수와 음모로 땅을 차지하려던 에드먼드의 욕망은 결국 파멸을 가져온다. 에드먼드는 아버지의 땅뿐만 아니라 왕국 전체의 땅마저 차지하려고 고너틸과 리건을 이용한다. 『리어왕』에서 대부분의 인

⁸ 글로스터와 아들들을 둘러싼 부-플롯을 삭제해버린 램 남매의 산문 『리어왕』에서 에드먼드는 고너틸과 리건의 부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야기의 끝 부분에서 짧게 언급된다. 여기서 램 남매는 에드먼드가 “합법적 계승자인 형 에드거의 백작지위 상속을 막는 것에 성공하고, 사악한 음모로 이제 자신이 백작이 되었다”(succeeded in disinheriting his brother Edgar, the lawful heir, from his earldom, and by wicked practices was now earl himself; 138)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백작지위를 상속받으면 당연히 아버지에게 속한 땅도 함께 물려받기 때문에, 램 남매의 산문에서처럼 땅에 대한 언급은 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셰익스피어 극에서 에드먼드가 자신의 야심을 드러낼 때 에드거가 상속받을 백작지위를 빼앗겠다는 언급은 전혀 없이 땅에 대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물들은 전쟁의 와중에 죽음을 맞는데, 극이 딸과 아버지의 관계를 중심으로 묘사하다보니 이 전쟁은 딸들 사이의 문제인 듯 다가오지만,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한 남성들의 전쟁이다. 어떤 면에서, 에드먼드와 리어의 세 사위들에게 리어의 딸들은 차지하고 싶은 왕국의 땅을 의미했다.

『리어왕』의 여성과 땅이 상징적 차원에서 연관성을 가진다면, 스마일리는 『리어왕』을 다시 쓰면서 이를 명확히 그려낸다. “쿡 가족의 천 에이커의 시작과 마지막 편입은 여성의 몸의 교환과 관련된다”(Slicer 63). 지니의 외증조부 밑에서 습지개간을 도왔던 할아버지 존 쿡(John Cook)은 이디스와의 결혼을 통해 장인이 가진 160 에이커를 물려받게 되었고, 이디스가 사망하던 해에 존은 두 번에 걸쳐 주위의 땅 220 에이커를 사들인다. 어머니의 죽음 후에도 쿡 가문의 땅은 다시 확장된다. 마지막으로 지니가 천 에이커에 대한 야심을 가진 타이(Ty)와 결혼했을 때 쿡 가문은 근처에서 드문 천 에이커의 왕국을 이룬다. 이러한 땅 확장의 역사에서 여성들은 마치 땅과 교환된 존재인 듯 보인다.

소설의 주된 시간적 배경은 1979년이지만, 스마일리는 여성의 몸과 땅을 연관 시킴으로써 식민지 개척 시기의 미국 역사와도 연결하고, 미국 역사에서 땅의 남용과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몸의 남용을 유비시킨다. 소설에서 많은 등장인물의 이름은 근대초기 탐험가들과 미국 식민지 개척시기의 인물들에게서 따온 것인데, 지니 가문의 성 ‘쿡’은 뉴질랜드와 호주를 탐험한 영국인 제임스 쿡(James Cook)을, 지니 남편의 성 ‘스미스’는 영국인들의 버지니아 지역 초기 정착을 이끌었던 존 스미스(John Smith)를 떠올린다. 증조부의 성 ‘데이비스’는 16세기 후반에 극지방과 아시아 방면으로 탐험했던 영국인 항해사 존 데이비스(John Davis), 쿡 집안 가족변호사의 성 ‘라살’은 17세기에 미국의 5대호 주변과 미시시피 강, 멕시코 만 등을 탐험했던 프랑스인 로베르 드 라살(Robert de LaSalle)에게서 가져 온 것 같다. 특히 주인공의 이름은 의미 있는데, ‘지니’라는 이름은 ‘버지니아’(Virginia)의 애칭이다.⁹ 버지니아는 영국인들이 처음 정착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럽인 탐험가들의 눈에 비친 아메리카 그 자체였다.

탐험가들과 초기 식민지 개척자들의 여행기, 편지, 문서 등에서 아메리카는

⁹ 버지니아라는 이름은 평생 여성의 글쓰기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버지니아 울프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울프가 여성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했듯, 소설의 결말에서 지니는 아버지의 집을 나와서 자립하고 자기만의 방에서 글쓰기 작업을 한다.

아직 순결을 빼앗기지 않은, 그리고 진취적 남성들이 순결을 빼앗아야 할 처녀의 몸으로 언급되었다. 일찍이 콜럼부스(Christopher Columbus)가 신대륙은 “갈망하고, 봐야 할 땅이지, 결코 남겨두어서는 안된다”고 말한 이후, 뉴잉글랜드에 대해 1616년에 존 스미스는 “그녀의 보물들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그녀의 원형들도 파괴되거나 소모되지도, 남용되지도 않았다”고 말했고, 1632년에 토마스 모튼(Thomas Morton)은 “서둘러서 신혼 침대에서 그녀의 연인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아름다운 처녀”라고 썼다(Kolodny 11-12). 유럽의 남성들에게 “놀라운 신세계”(brave new world; *Tempest* 5.1.186) 아메리카는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개발해야 할 곳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처녀지를 범하고, 이용하고, 변형시켜 농장, 도로, 집, 광산, 공장 등 좀 더 ‘생산적인’ 곳으로 만들었다.

유럽의 남성들이 ‘처녀지’ 아메리카의 땅을 마음대로 범했듯, 소설에서 지니의 조상들도 땅을 범하고 오염시켰으며, 결국 아버지는 딸의 몸을 범하게 된다. 바바라 매시이슨(Barbara Mathieson)이 말하듯, 스마일리가 끌어내는 근친상간과 땅의 남용간의 연관성은 아이오와 가족사를 넘어선 암시를 가진다(135). 타이와의 마지막 대화에서 지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은 이 원대한 역사를 보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준 타격을 봐요. 저는 당신이 그것을 원해서 가지고, 그리고는 당신이 한 일을 정당화시킬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을 봐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는 덮어 버려서 그 대가가 무엇인지도 잊어버리는 것을 봐요. 아버지가 혼자 스스로 생각해내서 우리를 때리고 성폭행했다고 제가 생각할 것 같아요? ... 아니에요. 아버지는 배운 것이에요. 그 학습은 땅, 그리고 뭐가 되었든 그가 원하는 방식 그대로 다루려는 욕망과 함께 세트의 일부예요. 물을 오염시키고, 표토를 황폐화시키고, 점점 더 큰 농기계를 구입하고, 그리고는, 당신이 말하듯, 이 모든 것이 ‘옳다’고 확신을 하는 것이지요.

You see this grand history, but I see blows. I see taking what you want because you want it, then making something up that justifies what you did. I see getting others to pay the price, then covering up and forgetting what the price was. Do I think Daddy came up with beating and fucking us on his own? . . . No. I think he had lessons, and those lessons were part of the package, along with the land and the lust to

run things exactly the way he wanted to no matter what, poisoning the water and destroying the topsoil and buying bigger and bigger machinery, and then feeling certain that all of it was 'right', as you say. (342-43)

제볼론 군에서 첫 트랙터를 구입하고, 큰 집을 사고, 비행기로 곡식에 농약을 살포하는 등 래리가 이룬 역사를 지니의 남편은 자랑스러워하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니는 증조부에서 아버지에 이르는 이 “자랑스러운 진보”(proud progress, 342)의 과정에서 희생되고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며 그 흔적을 찾으려 한다. 지니는 ‘자랑스러운 진보’의 파괴적 영향력은 단순히 자신의 가정사에서 벗어나, 미국 역사와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지적한다.

미국 식민지개척기 시절부터 발전과 진보라는 큰 대의를 위해 ‘주변부’의 희생은 당연시되었고, 집이나 가족처럼 여성은 가부장의 소유물이기에 딸들을 때리고 성폭행하는 일은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 사회에서 래리는 그것을 보고 배운 것이다. 식민지개척기 시절부터 처녀의 몸으로서의 아메리카 땅은 남성들이 전쟁을 치르고 원주민들을 내몰거나 죽이면서까지 서로 더 많이 차지하고, 그런 후 이용하고 개발해야 할 대상이었다. 이런 전통은 지니의 아버지에게도 이어져 많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 온갖 계획과 음모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여성의 몸에 대한 취급도 같은 방식이었다.

웬델 베리(Wendell Berry)는 몸의 취급과 땅의 취급 사이에 깊은 유사성이 있으리라는 것은 놀라울 것이 못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땅에서 와서 땅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몸은 땅의 움직이는 입자들이며, 토양이나 다른 살아있는 피조물들의 몸, 모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97). 인간의 몸과 세상의 몸으로서의 땅, 동물, 식물, 자연의 만물들이 결국 하나의 몸이고 대등하게 공존하는 관계임을 인식해야 다른 성과 다른 피부색의 몸을 구분하지 않고, 인간의 몸과 자연의 몸을 구분하지 않고, 성차별, 인종차별, 자연의 파괴와 같은 온갖 차별과 생명 파괴적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바로 현대 에코페미니스트들이 추구하는 것이며, 스마일리가 소설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V. 나가며

이상에서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으로 스마일리가 『리어왕』의 자연의 이미지들을 어떻게 변형시키고 재구성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렇다고 소설에서 에코페미니즘 관점의 이상향이 실현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설의 결말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전망은 어두워 보인다. 농장이 대규모 기업농에 넘어간 후 들판에는 더 이상 집이나 사람을 위한 공간을 찾아 볼 수 없다. 지니는 가부장적 억압체계로서의 남편과 아버지에게서 벗어났지만, 공감을 느꼈던 자연물들과는 멀어져 도시의 콘크리트 건물에서 생활하고, 한 달에 200달러씩, 14년간 갚아야 할 빚도 짊어졌다. 『침묵의 봄』 1장에서 묘사되는 이상향, 즉, 미국의 자연이 화학약품농약으로 파괴되기 이전 “모든 생명체가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 사는 듯 보였던”(Carson 1) 모습과 유사한 생활을 하는 부부를 만나고 유기농법을 실현하고자 꿈꾸었던 제스는 지니와 로즈의 관계만 파괴한 채 떠나버렸다. 로즈의 두 딸들은 아버지로부터 지니나 로즈가 겪은 고통을 겪지 않지만, 역설적이게도, 한 사람은 생명파괴적 농법을 대변하는 식품 복합그룹에 관심이 있어 그런 기업에 취업하려 한다. 『천 에이커』가 사실주의 소설인 만큼 스마일리는 미국 농업역사의 실제 현실을 반영하여 낙관적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¹⁰

이렇게 현실을 보여주는 데 그쳐버린 한계에도 불구하고 『리어왕』의 결말이 보여주는 비극적 우울함과 차이를 있다. 극의 결말에서 에드거는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느끼는 것을 말합시다”(speak what we feel, not what we ought to say; 5.3.299)라고 말한다. 극의 초반부에서 아버지의 바람대로 말해야 하는 것을 말했던 고너릴과 리건은 물론이고, 느끼는 대로 말했던 코딜리어도 모두 죽어버려 살아남은 여성은 아무도 없다. 또한 더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해 콘월(Cornwall)과 경쟁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올버니의 생존은 경쟁과 파괴의 남성적 원리가 살아남은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이후 땅과 자연에 다시 파괴의 손길을 미칠 여지를 남긴다. 반면 소설에서, 공존이 아닌 적자생존의 파괴적

¹⁰ 『천 에이커』에서 중심적 사건들이 발생하는 1979년은 미국의 농업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카터(Jimmy Carter) 대통령의 임기 말인 이때에 농부들은 농장을 담보로 대규모의 대출을 받도록 권장 받았고, 결국 많은 농장들이 빚을 갚지 못해 그들의 농장이 은행이나 농업 대기업에게 넘어갔다(Cakebread 86). 소설에서 마브 카슨(Marv Carson)은 이런 시대의 대표적 은행가이다.

자연관을 지닌 남성들은 모두 죽거나 떠났다. 그리고 이전에는 말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느끼는 것을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닌, 느끼는 대로 말할 수 있게 된 여성이 살아남았다. 그녀는 자연세계와 멀어졌지만 자연의 몸과 자신의 몸이 하나임을 느끼기에,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꿈꿀 가능성을 남겨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에코페미니즘, 가부장제, 여성, 자연, 습지, 물, 동물, 땅, 독

인용문헌

- Berry, Wendell. *The Unsettling of America: Culture & Agriculture*. San Francisco: Sierra, 1986.
- Cakebread, Caroline. "Remembering King Lear in Jane Smiley's *A Thousand Acres*." *Shakespeare and Appropriation*. Ed. Christy Desmet and Robert Sawyer. London: Routledge, 1999.
- Carson, Rachel. *Silent Spring*. 40th Anniversary ed. Boston: Mariner, 2002.
- Collingwood, R. G. *The Idea of Nature*. Oxford: Oxford UP, 1978.
- Chedgzoy, Kate. *Shakespeare's Queer Children: Sexual Politics and Contemporary Culture*. Manchester: Manchester UP, 1995.
- Danby, John. *Shakespeare's Doctrine of Nature: A Study of King Lear*. London: Faber, 1982.
- Gaard, Greta. "Living Interconnections with Animals and Nature." Ed. Greta Gaard. *Ecofeminism: Women, Animals, Nature*. Philadelphia: Temple UP, 1993. 1-12.
- Griffin, Susan. "Ecofeminism and Meaning." *Ecofeminism: Women, Culture, Nature*. Ed. Karen J. Warren. Bloomington: Indiana UP, 1997. 213-26.
- Gruen, Lori. "Dismantling Oppression: An Analysis of the Connection Between Women and Animals." *Ecofeminism: Women, Animals, Nature*. Ed. Greta Gaard. Philadelphia: Temple UP, 1993. 60-90.

- Kane, Julie. "From the Baroque to Wabi: Translating Animal Imagery from Shakespeare's *King Lear* to Kurosawa's *Ran*." *Literature Film Quarterly* 25.2 (1997): 146-51.
- Kermode, Frank. "Introduction." *The Arden Shakespeare: The Tempest*. Cambridge: Harvard UP, 1954.
- Knights, L. C. *Explorations: Essays in Criticism, Mainly on the Literature of the Seventeenth Century*. London: Chatto, 1946.
- Kolodny, Annette. *The Lay of the Land: Metaphor as Experience and History in American Life and Letters*. Chapel Hill: U of North Carolina P, 1975.
- Lamb, Charles, and Mary Lamb. *Tales from Shakespeare*. London: Dent, 1970.
- Leslie, Marina. "Incest, Incorporation, and *King Lear* in Jane Smiley's *A Thousand Acres*." *College English* 60.1 (1998): 31-50.
- Mathieson, Barbara. "The Polluted Quarry: Nature and Body in *A Thousand Acres*." *Novy*, 127-44.
- Merchant, Carolyn. *The Death of Nature: Women, Ecology,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New York: Harper & Row, 1980.
- Novy, Marianne, ed. *Transforming Shakespeare: Contemporary Women's Re-Visions in Literature and Performance*. Hampshire: Macmillan, 1999.
- Park, Katharine. "Response to Brian Vickers, 'Francis Bacon, Feminist Historiography, and the Dominion of Nature.'"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69.1 (2008): 143-46.
- Plant, Judith. "Searching for Common Grounds: Ecofeminism and Bioregionalism." *Reweaving the World: The Emergence of Ecofeminism*. Ed. Irene Diamond and Gloria F. Orenstein. San Francisco: Sierra, 1990. 155-61.
- Plumwood, Val. *Feminism and the Mastery of Nature*. London: Routledge, 1993.
- Puttenham, George. *The Arte of English Poesie. Elizabethan Critical Essays*. Ed. Gregory Smith. Vol. 2. Oxford: Oxford UP, 1950. 1-193.
- Ruether, Rosemary R. "Ecofeminism." *Ecofeminism and the Sacred*. Ed. Carol J. Adams. New York: Continuum, 1992. 13-23.
- Sanders, Julie. *Novel Shakespeares: Twentieth-Century Women Novelists and Appropriation*. Manchester: Manchester UP, 2001.
- Schiff, James A. "Contemporary Retelling: *A Thousand Acres* as the Latest *Lear*." *Critique* 39.4 (1998): 367-81.
- Schmidt, Alexander. *Shakespeare Lexicon*. Vol. 2. New York: Cosimo, 2007.
- Sessions, Robert Alan. "Ecofeminism and Work." *Ecofeminism: Women, Culture,*

- Nature*. Ed. Karen J. Warren. Bloomington: Indiana UP, 1997. 176-92.
- Shakespeare, William. *The Complete Works of Shakespeare*. Ed. David Bevington. New York: Longman, 2003.
- Slicer, Deborah. "Toward an Ecofeminist Standpoint Theory: Bodies as Grounds." *Ecofeminist Literary Criticism: Theory, Interpretation, Pedagogy*. Ed. Greta Gaard and Patrick Murphy. Urbana: U of Illinois P, 1998. 49-73.
- Smiley, Jane. *A Thousand Acres*. New York: Anchor, 2003.
- _____. "Shakespeare in Iceland." *Novy* 159-79.
- Vickers, Brian. "Francis Bacon, Feminist Historiography, and the Dominion of Nature."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69.1 (2008): 117-41.
- WTG and Elaine Feinstein. "Lear's Daughters." *Adaptations of Shakespeare: A Critical Anthology of Plays from the Seven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Ed. Daniel Fischlin and Mark Fortier. London: Routledge, 2000. 215-32.

ABSTRACT

**Jane Smiley's *A Thousand Acres*:
King Lear Reinterpreted from Ecofeminist Perspectives**

Haeja Do

A first acquaintance with the title and epigraph of *A Thousand Acres* shows that Smiley has interests which extend far beyond appropriating the plotline of Shakespeare's *King Lear* and its characters. Smiley adopts an ecofeminist perspective. From an ecofeminist perspective, some Shakespeare's plays reveal problematical attitudes towards the nonhuman natur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 animals, and nature. So does *King Lear*, of which the natural images and metaphors are carefully reworked into a twentieth-century American farming context in *A Thousand Acres*. In the play, water, marshes, and animals are generally evoked in a negative or accusatory manner. Patriarchs in *A Thousand Acres* have similar attitudes towards them. But these images are rethought and revised by the narrator and characters who take a nature-friendly approach. The novel shares with the play the poison motif as a metaphor for human greed and destruction. Whereas the poison motif in the play is used to show daughters' corruption and wickedness, in the novel the poisons are pesticides and fertilizers that patriarchs used. Rapacious agricultural practices causes poisoning of the women's bodies, leading to cancer and miscarriages. The novel repeated the parallels between the technological invasion of the landscape with the mastery and abuse of the female character. At the end of the novel, nature is vanquished on both the farm and in Ginny's life, but unlike Goneril in the play, Ginny acquires a great deal of valuable insight and manages to survive in the novel.

Key Words | ecofeminism, patriarchy, women, nature, marsh, water, animal, land, poison

원고 접수 2011년 6월 27일 | 심사 완료 2011년 7월 20일 | 게재 확정 2011년 7월 21일